

익산 전통시장 야시장서 여름밤 즐겨요

중앙·매일·서동시장에서 매주 토요일 열려... 전통시장형 여름축제 모델 제시

익산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연합회가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열리는 '야시시·으시시·배시시' 야시장이 시민과 전북도민들을 손짓하고 있다.

익산의 야시장은 지금까지 먹거리로만 운영되던 야시장의 한계를 넘어 전통시장 특유의 환경을 축제의 현장으로 변모시켜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단은 "전통시장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과거 문화의 보고와 유산이다. 전통시장의 모습이 좋은 아이디어와 만나 빛이 나는 결과를 익산 시민과 전라북도민들,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전통시장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2일 개장한 전통시장 여름축제는 야시장을 필두로 매진 사례를 이루

었던 귀신의 집, 폭염의 날씨를 더욱 큰 열정으로 잡아 삼킨 고고장, 익산의 어제와 오늘을 느낄 수 있었던 시장 골목 갤러리와 추억의 영화관을 비롯한 각종 체험 마켓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

가족과 함께 협장을 방문한 시민 최희숙(44)씨는 "요즘 야시장이 대체로 먹을거리들도 비슷하고 재미가 많이 없어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와봤는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많고 특히 귀신의 집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을 좀 더 내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며 "익산 시민으로서 전통시장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날려줄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의 '야시시·으시시·배시시' 야시장은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장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추억의 가구·소품 리폼행사 참여자 모집

8월 11일까지 선착순...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중 운영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2017.9.15.~9.17)기간 중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추억의 원목가구나 소품 등을 리폼하는 <1930's 솜씨방(공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오는 8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리폼행사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으로 본인이 소장한 가구를 직접 리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원목가구(소품) 리폼행사는 제5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맞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각 가정마다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집안 한곳에 자리하고 있는 추억의 물품을 깎고어내,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 <1930's 솜씨방(공방)>은 시내 공방

전문가 3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리폼행사를 지도하게 되며 특히 시간여행축제 메인행사장 인근에 자리한 1967캐 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gunsan.go.kr>)에서 하며, 대상품목은 가구·소품 등으로 4시간 이내에 작업 완료 가능하고 재도색이 원활한 원목 재질의 소형가구로 한정된다.

한편, 군산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 참여 쿠폰북 홍보,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군산뉴스>방송 프로그램 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특색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이번 축제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유엔군 참전의 날' 미 8전투비행단 위문

전북서부보훈지청은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오후 군산 미 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먼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한마음동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경찰, 소통·공감 워크숍

군산경찰서는 27일 경찰서 4층 진포마루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공감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원석 서장이 직접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치안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군산경찰 치안활동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안을 짚어보는 계기로 삼았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대, 다중이동물체 영상감시장치 기술이전

가시와 협약 체결... 특허청 IP-PLUG 활용 사례로 주목

군산대학교는 (주)가시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내 소회의실에서 특허기술이전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주)가시는 물리보안사업 중 CCTV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 소재 기업이다. 기술이전된 특허는 "유사한 색상을 지닌 다중이동물체의 식별 및 추적에 관한 영상감시 장치 및 방법"으로 발명자는 군산대학교 주영훈 교수(정보저어공학 전공)이다. 5년간 전용실시권을 허용하고, 선급실시료 3,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경상기술료로 매년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3%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특허기술이전은 특허 특허청의 지원사업인 IP-PLUG를 활용한 기술이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IP-PLUG는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술을 팔고 싶은 대학·공공(연) 및 투자자, 용자기관이 모인 네트워크이다. 가시의 강우석 대표는 "NEP(New Excellent Product : 우수 신제품) 인증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위해 영상추



군산대학교는 (주)가시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내 소회의실에서 특허기술이전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적 기술이 필요하였는데, IP-PLUG를 통해 여러 가지 기술을 제안 받았고, 그 중 군산대학교의 특허 기술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기술이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된 기술이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

지원해주는 등 지속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개발된 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폭염 속 어르신 안전 챙겨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이 27일~8월8일까지 4회간 무더위 쉼터 30개소를 찾아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긴다.

정 시장은 27일 오후 황교2마을을 비롯한 무더위 쉼터 4개소를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냉난방기 작동, 무더위 쉼터 간판부착,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및 포스터 비치, 무더위쉼터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여부, 무더위 쉼터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쉼

터 이용 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살펴

정 시장은 "최근 장마와 폭염 등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더위 쉼터의 주 이용층이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만큼 시설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대, 추억의 주전부리' 부스 운영자 모집

8월 11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중 운영

군산시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5회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군대, 추억의 주전부리'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8월 11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군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으로, 운영 메뉴는 보리개떡, 숯빵, 순대, 뽕튀기, 호떡, 만두, 옛날과자, 파배기(도너츠), 단말빵, 추억의 달고나 등 1930년대 그 때 그 시절 추억의 메뉴로 한정한다.

입점조건은 1일 5만원씩 3일간 총

15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시설물 훼손 시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 메뉴의 적합성, 참신성, 가격의 적정성, 기 운영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주전부리 부스 운영을 통해 군산시간여행축제 관광객들에게 1930년대의 군대도시 분위기를 느끼며 그 시절 대표 주전 부리들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여행터널을 통해 가족 연인들과 함께 과거로의 추억 여행도 떠날 수 있는,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전북 청소년 119안전뉴스 UCC 공모

익산소방서, 9월 29일까지 관내 초·중·고생 대상

익산소방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익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1회 전라북도 청소년 119안전뉴스 UCC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사고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제작해 발표하는 대회다. 참여방법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10인 이하 인원이 한 팀을 구성해 기존의 뉴스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5분 이내의 영상물(UCC)을 제작해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들은 전북소방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품 1점을 선정해 전라북도지사 상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권을 부여하며 전국대회는 11월 24일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주최 하에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